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4일 목요일 음 1월 21일 (13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0℃, 낮 최고기온은 14~15℃로 전망된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70%	제 주	80%
70%	성 산	80%
80%	고 산	80%
80%	서귀포	80%

	해뜸 06:59 / 해짐 18:33	달뜸 : / 달짐 10:07
물때	만조 01:57 / 13:59	간조 08:29 / 20:47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2/15℃
모레	흐리고 비	11/14℃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매우높음

월드뉴스

8인승 SUV에 25명 탑승… 차사고 참변

미 국경서 최소 13명 사망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미국 캘리포니아주 농촌 마을에서 정원 8명을 초과해 무려 25명을 태운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대형 트럭과 충돌하면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6시 15분쯤 캘리포니아주 임피리얼 카운티 농촌 마을인 홀트빌 인근 고속도로에서 1997년형 포드 엑스퍼디션 SUV와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충돌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8인승 SUV에 25명이 탑승했고,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 엘센트로 메디컬센터 등 3곳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크게 다친 사람도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수의 부상자는 머리를 다치거나 뼈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25명을 태우고 달리다가 사고가 난 SUV.

경찰은 8인승 SUV에 25명이 탑승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P통신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양상추와 채소류 수확기에 맞춰 사고 현장 일대에는 농장 일꾼들을 태운 버스와 SUV가 자주 다니고, 멕시코 출신 밀입국자를 실은 차량도 목격된다고 전했다.

미국 조사 당국은 SUV가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멕시코 출신 근로자를 태웠는지, 불법 멕시코 이주민을 싣고 달렸는지에 대해선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류 성 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공학박사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2021년 1월 20일)하면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EU와 캐나다를 포함해 약 2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고, 약 100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기업, 투자자 등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또는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했는데, 20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해 2022~2023년에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인 '3+1 전략'을 보면 첫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통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수소·전기차 생산·보급 확대로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둘째,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의 극대화를 위한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셋째,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구조전환으로 축소되는 석탄발전·내연기관차 산업 등의 경우,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를 재구축한다. 그리고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늘리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전략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해 추진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전부터 '카본 프리아일랜드(CFI) 2030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는데, 4대 정책목표를 보면 1)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100% 대응, 2)친환경 전기차로 도내 운행차량 대체, 3)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4)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등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계획들이 마련돼 있는데 구체화되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속끓는 생활숙박시설

고 성 협
제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장

숙박업은 일반숙박업(호텔, 여관, 여인숙)과 생활숙박업으로 나눌 수 있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의 공통점은 있으나 취사시설이 없는 것은 일반숙박업이라 하고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는 생활숙박업이라 구분한다. 과거 숙박업이라면 일반숙박업만을 일컫었으나 2012년 1월10일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장기투숙객을 위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추게 하면서 생활숙박업이 생겨났다.

요즘 생활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고있다. 분양자들이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주택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짓 광고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점이 생긴다. 분명 생활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다. 장기간 머무르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주택과 다른점이 없어 분양받은 이가 주택으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선 주택와 숙박시설의 용도를 구분한다.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하면 건축법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용도변경을 받아야 한다. 사전 변경없이 사용하면 위법이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청약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등 탈세의 방법으로도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게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했다. "인터넷 홍보 및 광고상에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주거)용도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로 홍보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분양과정에서 수분양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생활숙박시설은 현대의 생활방식에 맞춘 새로운 문화의 한 형태이다. 좋은 의도에서 생겨난 제도인 만큼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생교육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현 희 정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평생교육은 인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제안 프로그램 점검 차 현장을 방문 한 적이 있다. 그 때 그 강사의 말을 잊을 수 가 없다. 제주도에 내려와서 일거리도 없고 삶이 정말 힘들었을 때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찾아왔다고 했다.

아무런 기술도 없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모를 때 우연치 않게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인생의 달라졌다고 했다. 희망을 포기 했을 때 동아줄을 내려준 곳이 바로 우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이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홈패션, 컴퓨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소외됐던 자신감이 생겨나고 사람들과의 어울림, 배움, 나눔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교육을 통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질 수 있는 평생교육은 나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세상을 바꿔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잃어버렸던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평생교육이다.

무겁고 힘들었던 시기는 이제 다 접어두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3월이 시작됐으면 한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봄이 성큼 다가오는 만큼 가슴 활짝 열고 교육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평생교육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만들고 시민들의 삶이 더욱 더 풍요로워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2021년 3월 납품 예약마감
사전예약 특전(2년생 탱자대목) 2022년 3월 납품
예약기간 2021년 3월 10일까지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남진해(카라향), 제라몬,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 평 1,3,4년생
탱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 해 향 4,5년생
황 금 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